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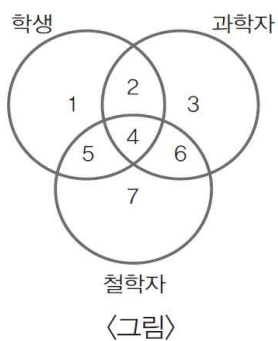
(가)

삼단 논법이란 두 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 도출하는 논증 방식이다. 전제와 결론에는 명제가 사용되는데, 명제의 형식으로는 전칭 긍정(모든 S는 P이다.), 전칭 부정(어떤 S도 P가 아니다.), 특칭 긍정(어떤 S는 P이다.), 특칭 부정(어떤 S는 P가 아니다.)이 있다. 전칭이란 주어(S)가 대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특칭은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긍정은 주어(S)가 술어(P)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정은 주어(S)가 술어(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삼단 논법의 세 명제는 세 명사(名辭)\*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령 ㉡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의 경우 세 개의 명사인 ‘학생’, ‘과학자’, ‘철학자’가 명제의 주어(S) 또는 술어(P)에 등장한다.

타당한 삼단 논법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두 전제를 참이라고 할 때, 두 전제가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면 타당하다고 말한다. 타당성은 명제의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 형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리는 실제로 모두 거짓 내용인 세 개의 명제로도 타당한 논증을 ㉢ 구성할 수 있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그림>처럼 세 개의 원에 세 개의 명사를 대응시킨 다음, 두 전제와 결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만일 전제에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으면 논증은 타당하지만, 전제에 결론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 논증은 부당하다.



앞의 예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제를 원에 대응시켜 보자.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는 학생이라는 원에서 1, 5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때는 학생인데 과학자가 아닌 1, 5 부분에 빗금을 쳐서 해당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는 철학자라는 원에서 4, 6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때는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4, 6 부분에 빗금을 그어 해당되는 철학자는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두 전제를 결합해 보면 1, 4, 5, 6 부분에 빗금이 그어진 상태이다. 결론인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의 경우는 철학자이면서 학생인 4, 5 부분에 빗금을 그어 해당되는 철학자는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제는 결론과 두 전제의 결합을 비교해 보자. 전제의 결합은 1, 4, 5, 6 부분에 빗금이 있고 결론은 4, 5 부분에 빗금이 있으므로 전제에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

\* 명사: 개념(概念)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으로, 명제를 구성하는 데에 요소가 되는 말.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형식에 의해 논증의 타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을 가려 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했는데, 이를 이용하면 삼단 논법의 타당성 판단을 ㉣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증에 포함된 명제들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단 논법에서 결론의 주어를 소명사, 술어를 대명사라 하며 두 전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사는 매개 명사라 한다. 전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는 대전제이고,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는 소전제이다. 또한 삼단 논법은 명제가 기본적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로 배열되지만 필요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명제에서 주어나 술어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지칭하는지를 가려 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주연이다. 명제 안에서 명사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면 ‘주연된다’고 한다. 주어는 전칭 명제에서 주연되고 특칭 명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다. 술어는 부정 명제에서 주연되고 긍정 명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다. 가령 ‘모든 고양이는 색맹이다.’에서 ‘고양이’는 이 세상 모든 고양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주연된다. 하지만 ‘색맹’은 이 세상 모든 색맹인 대상들 가운데에서도 고양이만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주연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규칙 중에 주연 개념에서 ㉤ 파생된 것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의 규칙이라도 위반한 삼단 논법은 부당한 논증이 된다. 첫 번째 규칙은 ‘매개 명사는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은 명사는 결론에서 주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두 번째 규칙을 위반하는 삼단 논법으로는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주연되고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 경우’와,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나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따라서 어떤 학생은 철학자이다.’라는 논증에 대하여 위의 규칙을 이용해서 타당성을 파악해 보자. 매개 명사 ‘과학자’는 첫 번째 명제에서 ‘어떤 과학자’로 사용했으므로 전체 과학자의 일부만을 ㉦ 지칭한다. 두 번째 명제의 ‘과학자’ 역시 ‘학생’ 중에서의 ‘과학자’를 의미하므로 과학자의 일부만을 지칭하고 있다. 첫 번째 규칙과는 달리 매개 명사가 두 전제에서 모두 주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증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와 (나)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삼단 논법에서 타당성의 의미를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삼단 논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삼단 논법에 대한 타당성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이유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삼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특정 학자의 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설명하고 있다.

2.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매개 명사는 결론의 주어나 술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당한 논증에는 실제 내용이 참인 명제가 한 개 이상 포함된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 논법의 타당성이 논증의 형식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 ④ 벤 다이어그램에 사용되는 원 하나는 삼단 논법에 사용된 하나의 명사에 대응한다.
- ⑤ 삼단 논법에서 대전제와 소전제에 해당하는 두 명제의 위치를 맞바꾸더라도 논증의 타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가)와 (나)를 바탕으로 삼단 논법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사 '학생'은 ㉠의 대전제에, ㉡의 소전제에 포함된다.
- ② ㉠과 ㉡에서 '따라서' 뒤의 명제는 모두 소명사를 포함한다.
- ③ ㉠의 매개 명사와 ㉡의 매개 명사는 모두 전제의 술어에 위치한다.
- ④ ㉠의 모든 전제는 전칭 명제이고, ㉡의 전제 중에는 특칭 명제가 있다.
- ⑤ ㉠에 사용된 긍정 명제의 개수보다 ㉡에 사용된 긍정 명제의 개수가 더 많다.

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명제 ㄱ~ㄷ을 구성하고 있는 주어와 술어의 주연 여부를 각각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ㄱ. 어떤 철학자는 논리학자이다.  
 ㄴ. 어떤 수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ㄷ. 어떤 심리학자는 요리사가 아니다.

	모두 주연됨	술어만 주연됨	주연된 것 없음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5.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나눈 대화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가비:** '모든 사자는 육식 동물이다.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육식 동물은 포유동물이다.'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라.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나비:** 응.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빗금을 그어 볼게. 다 그어 보니까 결론에서는 두 전제의 내용에는 없는 (㉠) 부분에 빗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전제에 결론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야.

**가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두 개의 규칙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나?

**나비:** (㉡) 주연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논증이야.

- |   |   |                       |  |
|---|---|-----------------------|--|
|   | ㉠ | ㉡                     |  |
| ① | 2 |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주연되고 전제에서는 |  |
| ② | 2 |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나 전제에서는 |  |
| ③ | 3 | 매개 명사가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모두  |  |
| ④ | 3 | 대명사가 결론에서만 주연되고 전제에서는 |  |
| ⑤ | 3 |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나 전제에서는 |  |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끌어 내는
- ② ㉡: 만들 수 있다
- ③ ㉢: 바르고 확실하게
- ④ ㉣: 갈려 나와 생기게 된
- ⑤ ㉤: 가리킨다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사가 성장하면서 ㉠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인 회사 분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 합병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될 때 이용하는 경영 방식이다. 회사 분할은 회사의 규모가 커진 후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합병보다 회사 분할이 더 늦게 제도화되었다.

상장 회사인 ‘(주)초롱’이 제과와 제빵 영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해 분할을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제빵을 떼어내 ‘(주)초롱빵집’을 만든다면 이를 신설 회사라 하고, ‘(주)초롱’은 존속 회사라 한다. 상장 회사가 분할을 하려면,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수가 모두 ㉡ 충족되어야 결의가 가능하다. ‘(주)초롱’의 발행 주식 총수가 ‘120만 주’이고 주주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60만 주’라고 가정하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인 ‘60만 주’의 2/3인 ‘40만 주’ 이상이 찬성을 했다면, 이 수는 발행 주식 총수인 ‘120만 주’의 1/3인 ‘40만 주’ 이상의 찬성 수에도 충족되므로 분할을 결의할 수 있다.

분할을 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 순자산은 분할 비율에 따라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가 나누어 갖는다.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이 값이 0.3이라면 신설 회사는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0.3배를 갖게 되며, 나머지는 존속 회사가 갖게 된다. 즉 ‘(주)초롱’의 순자산이 100억 원이라면, 분할 후 순자산은 ‘(주)초롱’이 70억 원, ‘(주)초롱빵집’은 3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설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의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구분된다. 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율만큼 존속 회사의 지분도 갖게 되고 신설 회사의 지분도 갖게 된다. 즉 분할 전 지분율 10%인 주주는 분할 후에도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에 대해 각각 10%의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게 된다. 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존속 회사가 가지고 가는 형태이며,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신설 회사의 순자산과 같다. 그래서 존속 회사는 모(母)회사, 신설 회사는 자(子)회사라고 부르는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물적 분할이 되면 분할 전 회사의 주주는 존속 회사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분율로 직접 지배하게 되지만, 신설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으므로 존속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한편 회사의 분할로 인해 몇 가지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는 근로자의 승계 문제가 있다.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상법에서는 신설 회사가 근로자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을 우선 ㉢ 적용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승계가 된다고 했다. 한편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도 쟁점이다. 만약 ‘(주)초롱’의 경영자가 이미 물적 분할된 ‘(주)초롱

빵집’에 대해 기업 공개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하자. 기업 공개란 회사가 가진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존속 회사 측에서는 ‘(주)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존속 회사의 순자산이 늘면, ‘(주)초롱’을 보유한 이들의 주식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점을 ㉣ 부각하여 기존 주주들을 설득시킬 것이다. 대신에 기업 공개 결과 ‘(주)초롱빵집’에 대한 ‘(주)초롱’의 지분율은 감소한다. 그래서 ㉤ 제빵 부문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초롱’을 장기간 보유하려 했던 기존 주주들은 기업 공개에 대해 반대를 할 수도 있다.

회사 합병은 여러 회사의 직원과 순자산을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회사를 소멸 회사라 한다. 그리고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 회사의 주주는 자기 지분의 가치만큼 관련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합병 대가라고 한다. 합병의 대부분은 흡수 합병이며, 이 방식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존속 회사가 되어 소멸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흡수 합병을 위해서는 존속 회사와 소멸 회사 모두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다. 만약 결의가 되었다면 합병 대가로 존속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 회사 또는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다만 이 권리는 회사 분할이 결의되었을 때 분할에 반대하던 주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삼각 합병도 합병의 한 형태인데,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소멸 회사 간의 합병이다. 삼각 합병은 자회사가 소멸 회사를 인수하지만, 합병 대가로는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삼각 합병의 경우에 자회사는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줄 모회사의 주식을 ㉥ 사전(事前)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삼각 합병을 하려면 자회사와 소멸 회사 모두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와 같으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합병이 결의되었을 때 자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모회사의 주주에게는 해당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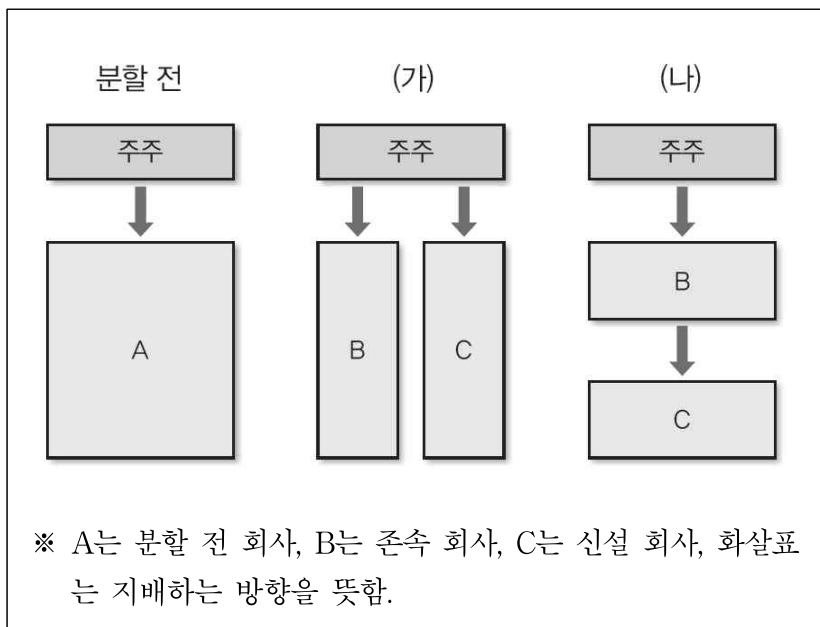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산은 순자산에 부채를 더한 값이다.
- ② 흡수 합병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소멸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 ③ 우리나라에서 회사 분할은 회사 합병보다 늦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 ④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데 생산성은 떨어질 경우 회사 분할은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⑤ 소멸 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되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합병 대가라고 한다.

8. **회사 합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흡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소멸 회사가 아닌 존속 회사의 주주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② 흡수 합병이 결의가 된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 회사의 주주는 존속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 ③ 삼각 합병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전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 ④ 삼각 합병이 결의된 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멸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 ⑤ 삼각 합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 총회 결의는 모회사와 소멸 회사의 결의이며, 자회사의 결의는 필요가 없다.

9. 다음은 회사 분할의 두 형태를 그림 (가), (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순자산에서 (가)의 B의 순자산을 뺀 값은 (가)의 C의 순자산과 같다.
- ② (가)의 C는 상법에 따라 A의 근로자 중에 분할과 관련된 이들을 승계해야 한다.
- ③ (나)의 경우, C의 순자산만큼 B가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된 주식은 C가 보유하게 된다.
- ④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A의 근로자를 (나)의 C가 승계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 ⑤ (나) 형태의 분할이 결의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는 A의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착한맛’은 피자과 치킨 영업을 함께 하는 상장 회사이고, 발행 주식 총수는 120만 주이다. 이 회사 경영인인 ‘갑’은 ‘(주)착한맛’을 20%만큼 지배하는 주주이다. 갑은 이 회사의 치킨 영업부를 떼어 내 ‘(주)꼬꼬맛’으로 인적 분할을 하기 위해 회계 팀에 분할 비율 산정을 의뢰하였다. 갑은 분할 비율을 0.2로 예상하지만, 의뢰 결과에 따라 이 값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조만간 분할을 위한 주주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① 분할 전에 경영인 ‘갑’은 ‘(주)착한맛’의 주식을 24만 주 보유하고 있었군.
- ② 분할 후에도 ‘갑’은 ‘(주)착한맛’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되겠군.
- ③ 주주 총회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더라도 찬성 수가 30만 주였다면 결의가 불가하겠군.
- ④ 분할 비율이 0.3으로 결정 난다면, ‘(주)착한맛’의 주주들이 갖게 될 ‘(주)꼬꼬맛’의 지분율도 예상과는 달라지겠군.
- ⑤ 의뢰 결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예상보다 치킨 영업부의 부채가 증가한 만큼 피자 영업부의 부채는 줄었다면 분할 비율값은 작아지겠군.

1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존속 회사는 ‘(주)초롱빵집’의 주식을 시장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주)초롱’의 부채가 증가하므로 존속 회사의 순자산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③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주)초롱’의 자산이 감소하므로 순자산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주)초롱’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 존속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기업 공개를 할 경우, ‘(주)초롱빵집’에 대한 존속 회사의 주주의 지배 형태가 직접적 지배에서 간접적 지배로 바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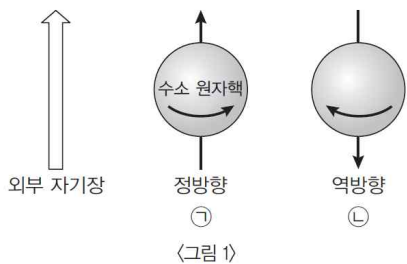
1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나 범위.
- ② ㉡: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앴.
- ③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 ④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⑤ ㉤: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핵자기 공명’은 자기장 속에 놓인 시료의 원자핵이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이다. 핵자기 공명으로 시료를 검사할 경우에 검사 과정에서 시료의 손상을 주지 않고, 한 번 검사한 시료라도 다시 검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핵자기 공명을 활용한 기술은 의학 또는 화학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때 공명의 대상이 되는 원자핵으로는 질량수 1인 수소가 많이 활용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질량수 13인 탄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소가 공명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수소 원자핵은 회전을 하는데 이를 핵의 스핀이라고 한다.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스핀은 무질서하게 배향\*하고 각각의 핵이 가진 에너지도 같다. 공명 장치의 내부에 있는 초저온의 자석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시료에 가하면, <그림 1>과 같이 스핀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정방향이거나 반대인 역방향으로 배향된다. 정방향의 핵은 에너지가 낮아지고 역방향의 핵은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이 에너지 차이만큼 외부에서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가하면 이를 흡수한 정방향의 스핀이 역방향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를 공명이라고 하고 가해 준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한다. 공명 상태에서 전자기파를 끊으면 핵은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공명 신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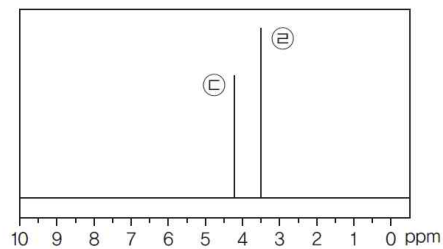


핵자기 공명은 의학 분야에서 인체 내의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자기 공명 영상 장치(MRI)’에 사용되고 있다. 인체 내부는 많은 양의 물(H<sub>2</sub>O)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장치는 H<sub>2</sub>O의 수소를 공명시켜 인체 내부를 화면에 밝기의 정도로 나타낸다. 사람은 세포 조직마다 지방과 물을 함유하는 고유한 비율이 있다. MRI에서는 이를 ‘T1 강조 영상’과 ‘T2 강조 영상’으로 나타내는데, 두 영상 모두 신호 강도가 높은 부위일수록 하얗게, 신호 강도가 낮은 부위일수록 어둡게 나타낸다. T1 강조 영상에서는 지방의 비율이 높을수록, T2 강조 영상에서는 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신호 강도가 높다. 이때 뼈는 두 강조 영상 모두에서 가장 어둡게 나타나 검은색으로 보인다. 세포 조직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 종양은 정상적인 세포 조직보다도 많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색의 밝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방사선을 이용하는 두 기기인 ‘엑스레이’와 ‘컴퓨터 단층 촬영(CT)’으로도 진단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진단할 수 있다.

핵자기 공명은 화학 분야에서 화합물의 결합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핵자기 공명 분광법(NMR 분광법)’에 사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공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이동’을 이용한다. 화학적 이동이란 같은 외부 자기장을 가해도 수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고 있으면, 수소의 결합 환경에 따라 수소 원자핵의 공명 주파수가 약간 달라지는 현상이다. NMR 분광법에서는 화학적 이동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그림 2>는 메톡시아세트나이트릴(CH<sub>3</sub>OCH<sub>2</sub>CN)의 스펙트럼이다. C, H, N, O가 이 시료를 ①이루고 있으며, 결합 환경이

다른 수소는 두 가지로 CH<sub>3</sub>O의 수소와 CH<sub>2</sub>CN의 수소가 있다. 수평축은 화학적 이동을 ppm\*이라는 단위로 나타내는데, 결합 환경이 같다면 수소 원자핵



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서 봉우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위치가 다른 봉우리는 결합 환경이 같지 않은 수소들이 몇 종류인지를 보여 준다. 결합 환경에 의해 높은 공명 주파수를 갖는 수소일수록 봉우리는 왼쪽에 위치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수소의 결합 환경에 대응하는 ppm값들은 알려져 있는데 통상 0에서 10ppm 사이의 값을 가진다. 또한 스펙트럼에서 봉우리의 높이는 공명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수소 원자핵의 개수가 많을수록 봉우리는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나타난 ppm값과 봉우리의 높이를 통해 시료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

\* 배향(配向): 어떤 결정의 축과 그 계의 기본축 사이의 각도 관계.  
\* ppm: 백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13.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 ① 핵자기 공명을 이용하여 시료를 검사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 ② 핵자기 공명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핵으로는 수소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의 강조 영상에서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뼈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④ 핵자기 공명 장치의 내부에 있는 자석을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⑤ 자기 공명 분광법으로 얻어 낸 스펙트럼에서 봉우리가 나타나는 ppm값의 범위는 얼마인가?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수소 원자핵의 스핀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다.
- ②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와는 달리 컴퓨터 단층 촬영(CT)은 수소의 공명 현상을 이용한다.
- ③ 결합 환경이 같은 수소 원자핵들은 자기 공명 분광법의 스펙트럼에서 봉우리가 나타나는 위치가 서로 일치한다.
- ④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 T1 강조 영상으로 시료를 검사하면 T2 강조 영상과 달리 시료에 손상이 발생한다.
- ⑤ 화학적 이동이란 외부 자기장이 일정할 때 수소의 결합 환경이 달라져도 수소 원자핵의 공명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 현상이다.

15. 윗글의 <그림 1>과 <그림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ㄱ. <그림 1>에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과 ㉡의 에너지 상태는 같아진다.  
 ㄴ. <그림 1>에서 전자기파가 가해지면 ㉡은 ㉠ 상태로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ㄷ. <그림 2>에서 수소의 공명 주파수는 ㉢보다 ㉣이 더 낮다.  
 ㄹ. <그림 2>에서 ㉢은  $\text{CH}_2\text{CN}$ 의 수소를, ㉣은  $\text{CH}_3\text{O}$ 의 수소를 나타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보기>에 제시된 조건들을 바탕으로, 환자의 자기 공명 영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건 1] 환자의 복부를 촬영하니, 화면을 통해 세포 조직 중 정상인 조직 P, Q, R와 종양이 관찰되었다.  
 [조건 2] P, Q, R, 종양은 모두 물과 지방만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세포 조직이 포함하고 있는 물의 비율은 30%, 20%, 10%, 50%로 알려져 있다.

- ① T1 강조 영상에서는 P, Q, R, 종양이 모두 서로 다른 밝기로 나타났겠군.  
 ② T1 강조 영상에서는 종양이 R보다 신호 강도가 낮게 나타나겠군.  
 ③ P가 R보다 하얗게 보이면 T1 강조 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군.  
 ④ T2 강조 영상에서는 P가 Q보다 신호 강도가 높게 나타나겠군.  
 ⑤ T2 강조 영상에서는 가장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종양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1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하게 활용된 것은?

- 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② 그녀는 막냇동생이 혼사를 이루게 된 것을 자랑했다.  
 ③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동화책을 읽어 주면 좋다.  
 ④ 내가 할아버지의 유언을 못 이룬다면 그분께 면목이 서질 않는다.  
 ⑤ 동아리를 이루고 있는 부원들은 모두 나와 친한 관계를 맺고 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대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우고 ㉢잡자던 흙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어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 패역: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남.

(나)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겨울 바다」 -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계절 순환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과거형 진술을 사용해 화자의 회상과 연관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을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밝음과 어둠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참나무 떼'가 슬픔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공간이다.
- ② ㉡: '참나무 떼'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다.
- ③ ㉢: '바람'에 의해 흔들린 '참나무 떼'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존재이다.
- ④ ㉣: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 공간에서 피어난 새로운 생명이다.
- ⑤ ㉣: '뿌리'가 없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너'의 의지이다.

20.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특정 공간에서 화자가 보길 원했던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1연에서부터 이어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적 대상과 연관 짓고 있다.
- ③ 4연에서는 2연에서의 상황에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대상이 무엇인지 밝히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 ④ 5연에서는 4연에서의 태도를 심화하면서 반복된 행동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극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7연에서는 1연에서와 유사한 상황을 그리면서도 1연과는 달리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시어나 시적 상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한다. 시인은 유사한 의미를 함축한 시어들을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기도 하고, 그 의미와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어를 제시하여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확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함축적 의미 및 이와 대립되는 의미들을 탐색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경험, 시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① (가)의 '씩어 가는 참나무 떼', '벌목의 슬픔', '패역의 골짜기'는 화자와 그 주변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겠군.
- ② (가)의 '상처'는 화자의 아픔이자 '버섯이 피어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절망과 희망이라는 대립적인 의미를 품은 이중적 공간이기도 하겠군.
- ③ (나)의 '매운 해풍'은 화자에게 긍정적 대상인 '그대'와 관련된 '진실'마저 열려 버린다는 점에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허무의 / 불'과 '물이랑'은 '물'과 '불'이라는 직접적인 대립 관계를 드러내면서 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이겠군.
- ⑤ (가)의 '서서히 씹어 가지만', '그 고통'과 (나)의 '기둥'은 화자가 바라는 상황과 각각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적 기능이 유사한 것이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황석영의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삶의 틈을 다룬 소설이다. 역사를 거대 담론이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역사는 개인적 삶이 복원될 때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역사적 사건 저변에 잠재해 있는 개인적 삶을 복원하려는 인물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소설에 등장하는 산천에 대한 묘사와 인물들의 언급은 개인의 삶을 주목하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청년의 등장은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려는 시도로 연계된다. 청년과 노인의 만남으로 인해 역사적 사건에서 배제된 개인의 사연이 소환되기 때문이다. 노인과 청년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침묵과 대화를 통해 힘들게 들추어지는 것은 '별의별(벼라별) 일'들이다. 전쟁과 개인의 정념을 억누르는 인습 등이 역사를 구성하는 거대 사건들에 해당한다면, '별의별(벼라별) 일'은 이러한 거대 사건들에 의해 훼손된 개인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개인의 삶이 역사적 사건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의 전모를 그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년과 노인이 시도하는 합장은 개인의 삶을 복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역사를 구성하려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노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몇몇 단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부모에 관한 사연이다. 청년 아버지는 자신이 가담한 단체의 활동에 연루되어 이념 대립이 첨예한 전쟁 상황에서 희생된 인물로 보인다. 과수매이었던 청년 어머니는 청년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당시의 인습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 인물로 판단된다.

청년 아버지의 희생은 전쟁을 야기한 이념의 대립을 환기한다. 청년 아버지의 개인사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누락되어 청년에게조차 전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누락된 개인사를 복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인과 청년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합장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희생을 야기한 비극의 원인이 여전히 현실 상황에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역사가 세대 간의 기억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노인은 청년 아버지의 삶을 청년에게 전하고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죽음 이후의 모습을 담담하게 토로하는 것은 이러한 노인의 내면을 드러낸다. 또한 청년의 꿈은 다음 세대로 전달 되는 역사의 흐름을 나타낸다. 청년의 꿈속에서 고적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산천과 이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말들의 동적인 이미지는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삶의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다. 영속적인 산천의 모습과 세대를 이어 가는 다양한 모습의 개인의 삶이 조우하는 현실을, 청년은 합장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은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년이 넙죽 절을 했다. 당황한 노인이 끄응, 하면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노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드는 청년을 바라보았다.

뉘시던가?

저는…… 감나무집……

하며 그가 사이를 떼는데, 노인이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아랫배에서 무슨 덩어리가 뚫어올라 온몸을 훑고 터져 나오는 듯한 기침 속에서 노인이 간신히 중얼거렸다.

알겠네. 어디서…… 본 듯하더니만……

노인이 요강을 끌어다가 몇 몽치인가의 가래를 쏟아 냈다. 노인은 잠깐 진정하려는지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발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자네가…… 찬식이 자제란 말이지?

네.

쑥 뺏구면. 여기는 어찌 알고 왔나?

청년이 고개를 푹 수그렸다. 노인은 몇 번이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청년이 말했다.

사흘 전에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참이나 기침을 터뜨렸다.

그분이 꿈에 보이더니…… 어떻게 장례는 치렀나?

청년이 미닫이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모셔 왔습니다.

안으루 모시게나.

노인이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고개만 끄덕였다. 청년이 라면 상자를 윗목에 놓자 멍하니 지켜보던 노인이 말했다.

아…… 답답하다.

노인의 눈이 그늘 속에서 반짝였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였다. 노인은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노인이 말했다.

임종 때 무슨 말씀 없으시던가?

까막골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과 ㉠ 합장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구 배 선생님에 관해서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테지.

저녁 들여갈까요?

밖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냐, 그보다두 좀 나갔다 올 일이 있소.

당신 수삼(水蓼) 달여 논 거 마시구 나가셔요.

알았소.

노인이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일어섰다.

자아…… 가 보세.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섰다.

(중략)

이리루 질러가세.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로우니……

노인이 지팡이로 돌담이 둘러진 원편의 논두렁길을 가리켰다.

저 쓰잘데없는 나무를 보게.

노인은 논두렁 옆에 개울가로 무성하게 자라나 통행을 방해하는 아카시아 덤불을 지팡이로 툭툭 쳤다. 개울 위쪽에는 붉은 흙과 돌더미가 드러난 척박한 야산이었다.

참, 낙엽송이며 회나무며 솔도 많았건만…… 산 풀이 심란허이.

청년이 노인의 말에 동의했다.

전방에는 아예 산이 주저앉아 버린 데두 있습니다.

산의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데……

위로 오를수록 눈은 없어지고 등성이를 깎아서 일군 밭이 층계 처럼 잇달아 나타났다. 밭이 끝난 곳에 아카시아의 덤불도 끝나 있었고 실오라기 같던 물줄기도 땅 아래로 숨어 들어가 있었다.

다만 축축한 땅 위에 썩은 나뭇가지와 함께 물때가 푸른색으로 덮여 있었다.

내 몸이 이러니, 어디 돌볼 수가 있겠나.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밭고랑 위에 바짝 붙어서 땅이 겨우 알아볼 만큼 불쑥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때를 입혔던 흔적이 보였다. 풀이 흥하게 돌아났는데 드문드문 들꽃이 섞여 있었다. 멀뚱히 섰는 청년에게 노인이 말했다.

뭘 해, 인사 올리지.

하고 나서 붉어진 눈으로 노인이 코를 풀었다. 청년이 못내 어색한 형상으로 삼배를 올렸다. 그들은 풀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렇잖아두 여영 소식이 없으면 내가 이장을 할 작정이었네.



요 너머 맞춘한 자리가 있어서, 여긴 물이 나서 못쓰겠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두 거기쯤 자리 잡을라네.  
 노인이 웃었다. 웃음의 끄트머리에 짧은 기침이 잠깐 잇닿았다.  
 자네 모친이 먼저 가시다니 자네가 이렇게 장성하고 여길 찾을 동안에 온갖 사연이 많았을 것일세. 세상엔 벼라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생각이 뒤숭숭한지 모르겠군.  
 천상 묘를 파야겠군요.  
 뭐 반나절이면 이장까지 끝나겠구먼. 처음엔 내 혼자 밤에 묻었으니까.  
 밤에요?  
 그렇지. 밤에 자네 부친 시신을 내가 아무도 몰래 ㉠수습해다 묻었지. 나중에 다시 입관시키느라구 고생했네만……  
 언덕 위에서는 들판과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숲 위로 지붕들이 보였는데 일자 기와집이 한가운데 보였고 높다란 나무가 솟아올라 있었다. 그곳에 시선을 주고 있던 청년이 말했다.  
 저기가 감나무집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모친의 시가였네. 깔끔한 분이셨어.  
 두 분의 고향이 아니네요.  
 내 고향두 아닐세. 아주 옛날에 내가 젊어서지. 학교를 해 본다구 내려와서 주저앉았다네. 자네 부친이 여기 온 건 일 때문이었지. 노인이 혀를 찼다.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그 친구 잘못 어울렸네. 뜻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청년은 땅과 구별할 수 없는 비스듬한 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노인은 말했다.  
 그 녀석이 은근한 정분이 난 걸 나두 몰랐지.  
 어머님이 여길 떠나시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새벽이던가…… 그이는 머리를 감추느라구 수건을 깊숙이 쓰구 있었어. 자네 부친이 그 꼴을 당하고 이틀 만일 게야. 시댁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죽은 자는 언제나 젊고…… 살아 당한 고초가 더하지.  
 청년이 훌훌 털어 버리는 것 같게 재빨리 말했다.  
 내려가시죠. 어두운데요.  
 그러지.  
 초롱초롱하게 나타난 별빛과 저녁 바람을 대하니 문득, 초가을이었다. 청년은 고개를 돌려 몇 번이나 밧고랑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예전엔 이 밧터가 그 집 뽕밭이었네. 그 녀석이 다쳐 가지군 숨어 있잖았나. 총 든 자들이 와서 잡아냈지. 나는 이것저것 다 피해 살아온 사람일세. 우리네가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어두워진 신작로에 나섰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득하게 먼 데서 놀러 나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기다란 고함소리도 들려왔다.  
 그 무렵에 여긴 썩밭이 되었네. 나두 잃은 게 많지. 까막골두 저쪽 모랫말루 이사를 해 버렸으니, 남의 동네가 돼 버린 셈이야.  
 두 사람은 고개 위에서 처마 끝에 달린 등이 흔들거리는 모양을 보았다.

마당에는 전깃불이 환히 번져 있었고 남자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이 모여든 것 같았다. 그들은 바깥 뿔마루로 해서 조용히 안방에 들어갔다. 저녁상이 들어오자, 노인은 아내의 만류도 마다하고 술을 청했다. 취한 노인이 먼저 자리에 들고, 청년은 오락가락 시오리 길인 읍내에 나가서 한지와 송판을 사 왔다. 청년은 노인 옆에 나란히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다. 언제 깰는지 노인이 중얼거렸다.  
 물소리를 듣노라면 잠이 오지.  
 네.  
 하고 나니 정말 도란도란 흘러내려 가는 주막 앞의 시냇물 소리가 고즈넉하게 들려왔다. 저수지의 수문 밑을 새어 나와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물이었다.  
 청년은 꿈에 수많은 말의 무리가 구름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끝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검은 말, 흰말, 얼룩말들의 뽕뽕한 궁둥이가 햇빛에 번쩍였고, 끝도 없는 말발굽 소리가 컷가에 가득 찼다. 드디어는 발굽 소리도 멀리 가고 일렁이던 먼지가 아주 차츰차츰 가라앉았다. 망원경의 유리알을 통해서 지평선이 나타났다. 숫자와 좌표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사방 어디에나 똑같은 산천이었다. 인기척 없는 들판을 바라보노라면 그때마다 초조해서 안달이 났다. 다시 말이 달려가고, 들판이 보이고 하는 장면을 거듭 꿈꾸었던 것 같았다.  
 - 황석영,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 -

2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년은 아버지의 묘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한다.
- ② 청년은 노인을 통해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 ③ 노인은 청년 어머니의 과거 행적에 대해 연민을 나타낸다.
- ④ 청년 어머니는 노인의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시가에서 내쫓긴다.
- ⑤ 노인은 청년 부친의 죽음을 초래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고초를 겪는다.

23. (가)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상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려는 청년의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꿈의 장면마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해당 장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말의 빗깔을 제시하여 노인과 청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초조한 심리를 제시하여 청년이 자신의 부모와의 재회를 기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부모의 사연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는 청년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청년이 노인을 찾은 목적이다.
- ② ㉡은 노인이 동네 사람들 몰래 한 과거 행위이다.
- ③ ㉠은 ㉡이 이루어진 곳에서 행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④ ㉠은 청년이 ㉡의 경위를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은 청년 어머니의 소망을 나타내고, ㉡은 청년 아버지의 비극적 삶을 나타낸다.

25.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청년과 노인이 만나는 장면의 대화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말 줄임표는 드러내기 어려운 사연을 꺼내는 두 인물의 작중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로우니……’라는 노인의 말과 안방으로 들어가는 두 인물의 은밀한 행동은 개인적 희생을 불러온 전쟁의 영향이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흙과 돌더미가 드러나는 척박한 야산과 ‘산의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데……’라는 말은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현실 세태의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고초를 겪고 감나무집에서 떠나게 된 청년 어머니의 일은 개인의 정념을 억누르는 인습에 의해 훼손된 개인적 삶을 구성하는 ‘벼라벌 일’ 중 하나이겠군.
- ⑤ ‘총 든 자들’이라는 표현은 청년 아버지가 이념의 대립으로 벌어진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선옥이 부인 이 씨를 오해하여 집을 나가자 선옥의 팔촌인 형욱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선옥을 데리고 와 진짜 행세를 하게 한다. 그런데 선옥의 부인 이 씨만이 가짜 선옥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채고, 다른 가족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임금은 진 어사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명하고, 진 어사는 진짜 선옥을 찾아내어 집으로 데려온다.

이 씨가 고하였다.

“부부가 비록 이성지친(二姓之親)이오나 또한 오류의 한 가지이랴. 이러므로 공자가 가라사대, ‘군자지도(君子之道)가 조단호부부(造端乎夫婦)\*라 하였사오니, 부부지도가 또한 중대할지라. 부부의 정은 부자의 정을 따르지 못하겠거니와 그 외양의 현저한 면목이야 길 가는 사람일지라도 알아볼 것인데,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지키는 여자가 어찌 그 장부를 모르리까? 이제 저놈이 분명 부군이 아니나 시부모와

친척이 모두 가부(家夫)라 하니, 미망인은 고독단신이라 아무리 바른 대로 하오나 깨닫지 못할 뿐이 아니라, 도리어 미망인을 심병이라 하고 시가에 내쳤나이다. 미망인의 깊은 마음은 하늘이 세상을 굽어보시니 다른 간사한 실상은 발명(發明)치 못하겠사오며, 이제 죽기를 두렵거든 마음을 고치라 하시니 알지 못하겠나이다. 대인이 조정의 명망이 어떠하시며, 금일 소임이 존위가 어떠한 지위여서 살기를 탐하여 의로움을 잇는 사람이 되라고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시니이까? 옛 말씀에 하였으되, ‘만승지군\*은 빼앗기 쉬우나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뜻은 빼앗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제 왕명으로 죽이시면 진실로 달게 여기는 바이오나, 다만 부군을 만나지 못하고 죽사오면 미망인의 원혼은 구휼할 것이 없을 것이요, 일후에 부군이 비록 돌아와도 진위를 분변할 자가 없사오니 가부의 신세가 마침내 걸인을 면치 못할지라.”

라고 하고 죽기를 재촉하였다. 어사가 크게 노하여, “네 일개 요망한 여자가 심성이 교악(狡惡)하여 아래로 김씨 문중의 천륜을 의혹케 하고, 위로 천청(天聽)을 경동(驚動)케 하여 조정과 영음이 분란케 되었으매, 벌써 거리에 머리를 달아 여러 백성을 징계할 것이로되, 성상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나를 보내셔서 십분 자세히 살피라 하시어, 내 여러 고을에서부터 너의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한 심정을 이미 알았으나 성상의 관인대도(寬仁大道)\*를 본받아 형장을 쓰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자식같이 타일렀으니, 사람이 목석이 아니거늘 일향 고집하여 조정 명관(命官)을 무단히 면박하며 난언패설(亂言悖說)\*로 송정(訟庭)\*에 발악함이 가하겠는가?”

하고 종인을 꾸짖어, “이 씨를 형추(刑推)\* 거행하라.” 하였다. 선옥이 소리를 크게 하여 나졸을 불러, “병자 이 씨를 형추하라.” 하니, 나졸들이 미처 거행치 못하여, 문득 이 씨가 가마 속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어사는 왕인(王人)\*이라, 이 곧 백성의 부모요, 상하 관속은 모두 나의 집 하인이다.”

하고 가마의 주렴을 떨치고 바로 청상(廳上)에 올라 어사의 종인을 붙들고,

“장부가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왔나뇨?” 하며 인하여 혼절하니, 통판이 딸아이의 혼절함을 보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약을 갈아 입에 넣고 사지를 만지며 부르짖었다. 낭자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들어 보니 부군이 또한 기절해 있었다. 부친으로 더불어 구료(救療)\*하니, 대청 위아래에서 보는 자가 놀라 괴이하게 여기지 않은 자가 없었고 처사의 부부와 송정에 있던 자가 그 곡절을 알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보아 어떻게 할 바를 깨닫지 못하며, 가짜 선옥과 형욱은 낮이 흠뻑이 되어 떨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이때 어사가 광경을 보니 이 씨의 절개도 가늠하거니와 그 선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더욱 탄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아와 이 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 씨로 수양딸을 정하였다. 이 씨가 부녀의 예로 보니 어사도 선옥과 이 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 씨더러 물었다.

“여아는 어찌 가부의 진가를 알았느냐?”

이 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 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놈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도소이다.”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차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가치가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 퍼려니와 우선 내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 하였다. 남자가 말 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이 수삽(羞澁)\*하십니까?”

선옥이 그제야 남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모년 모월 모일 야(夜)에 중의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처소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기롱(譏弄)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며,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와 그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러하면 누명(陋名)이 나타나 나의 집안의 명성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 하고 강변에 나아가 굴원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 도로 절을 향하여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분한 심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할진대 어찌 실가(室家)의 즐거움이 있으리오?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 하여 그길로 운산을 바라보고 창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 대사의 상좌(上佐)가 되었으나, 대인을 만나 종적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의상을 적시며 이르기를,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뇨? 이같이 의심할진대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한을 풀지 아니하였나뇨?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송정에 있으며 장부가 보고자 하나이까?”

하고 시비 옥란을 부르니 마루 아래에 이르렀다. 남자가 가 리켜 말하기를,

“이 곧 그때의 의관한 남자라.”

하니 선옥이 물었다.

“여자가 어찌 의관이 있으리오?”

남자가 대답하였다.

“첩에게 묻지 말고 옥란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선옥이 옥란에게 물었다.

“네가 육 년 전 모월 모일 야(夜)에 어떤 의관을 입었더뇨?”

옥란이 반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小婢)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남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 시매 앞뒤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 에서 보낸 것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남자 께 여쭙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하나이까?’ 하니, 남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빠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

오니 이 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선옥이 듣기를 다하고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빙설 같은 이 씨를 의혹하던 일과, 이 씨의 중간 축출하던 일을 일일이 생각하니 후회막급이라.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

- \* 군자지도가 조단호부부: 군자의 도는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 \* 만승지군: 만승지국의 임금이라는 뜻으로, 천자나 황제를 이르는 말.
- \* 필부필부: 평범한 남녀.
- \* 호생지덕: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 주는 제왕의 덕.
- \* 관인대도: 너그럽고 어진 큰 도.
- \* 난언패설: 어지럽고 사나운 말.
- \* 송정: 송사를 처리하던 법정.
- \* 형추: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
- \* 왕인: 왕명에 의해 내려온 관원.
- \* 구료: 가난한 병자를 구원하여 치료해 줌.
- \* 수삽: 몹시 부끄러워 우물쭈물함.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씨는 가짜 선옥에 대해 집안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 ② 이 씨는 자신이 죽게 되면 진짜 선옥을 구별하기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 ③ 처사 부부는 이 씨가 어사의 종인을 붙들고 쓰러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 ④ 이 씨가 가마에서 내린 후에도 어사는 여전히 선옥의 진위에 대한 의혹을 드러냈다.
- ⑤ 도복의 길이가 선옥에게 적당한지 시험하는 행위가 선옥이 이 씨를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27. ㉠~㉣을 중심으로 인물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욕망이 좌절된 선옥은 ㉡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② ㉠에서 선옥은 ㉢에 등장하는 인물의 지시에 따라 집을 나섰다.
- ③ ㉡에 있던 선옥은 ㉠에 있던 인물을 만나 ㉢에 등장하게 되었다.
- ④ ㉢에서의 선옥은 ㉠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단에 대해 후회하였다.
- ⑤ ㉢에서 선옥은 ㉠에서 ㉡으로 향하는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화산중봉기」와 같은 ‘진가(眞假) 판별형’ 소설은 특정 계기를 통해 주인공의 모습을 닮은 가짜 인물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을 겪다가 원상태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소설에는 대부분 집을 떠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본래의 자기 자리를 되찾는 서사 구조가 등장하며, 주위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인공의 진가(眞假)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가짜 인물의 등장 과정과 주인공의 심리 변화, 주위 사람들이 주인공의 진위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작품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성상’이 ‘호생지덕’으로 어사에게 ‘십분 자세히 살피라’라고 한 것은 진짜 선옥이 본래의 자기 자리를 되찾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이 씨가 어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참깨만 한 푸른 점’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이 씨가 어사의 도움으로 선옥의 진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③ 진짜 선옥과 가짜 선옥이 앞니의 푸른 점만 제외하고 다른 생김새는 ‘추호도 차이가 없’는 점은 주위 사람들이 선옥의 진가(眞假)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④ 진짜 선옥이 이 씨의 처소 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이 씨가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기롱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진짜 선옥이 고난을 겪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⑤ 진짜 선옥이 옥란으로부터 ‘육 년 전 모월 모일 야’의 상황을 전해 듣는 것은 진짜 선옥이 본래의 자기 자리를 되찾아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군.

29. [A]에 드러난 ‘이 씨’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말을 예로 들며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다.
- ② 문제 상황을 드러낸 후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③ 자신의 과거 행적을 설명하며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위로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다.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버디 몇치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들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 밧기 또 더허야 머엇허리

<제1수>

구름빛치 조타 하니 검기를 즈로 한다  
브람 소리 몯다 하니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논 물뿐인가 호노라

<제2수>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플은 어이허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호노라

<제3수>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님 디거늘  
① 술아 너는 언디 눈 서리를 모르느다  
구천(九泉)의 불희 고든 줄을 글로 허야 아노라

<제4수>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느다  
더러코 스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호노라

<제5수>

차근 거시 노피 떠서 만물(萬物)을 다 비취니  
밤둥의 광명(光明)이 너만 하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변인가 호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 -

(나)

서파삼우(西坡三友)는 나의 벗 이이립(李而立)이 스스로 지은 호이다. 이립은 남다른 호걸이다. 젊은 시절 육경(六經)에 통달하여 유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을유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臺諫)을 역임하고 인사를 담당했다. 십 년 동안 벼슬하면서 공적과 명성이 현저했으니, 하늘이 낸 인재라 하겠다.

기해년 가을, 벼슬에서 물러나 남쪽으로 돌아와 영천(永川)의 서파리(西坡里)에 살면서 스스로 호를 서파삼우라 했다. 삼우(三友)는 양수(陽燧)\*, 빨간, 쇠칼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뒤로 사람들은 나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고, 나 역시 굳이 사람들을 벗으로 삼으려 하지 않네.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벗으로 삼아서 양수로 불을 지피고 빨간에 술을 담으며 쇠칼로 회를 떠서 혼자 술을 따라 혼자 마시네. 취하고 배부르면 고기 잡고 벼농사 짓는 시골에 살면서 요순시절 같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네. 이것이 내가 벗으로 삼은 까닭이니, 자네는 이 뜻을 글로 지어 설명해 주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맹자가 말한 대로 벗이라는 것은 그 덕을 벗으로 삼는 것이다. 벗으로 삼을 만한 덕이 있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벗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물건을 벗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벗으로 삼을 만한 물건은 이것들뿐만이 아닌데, 굳이 이것들을 벗으로 삼은 이유가 어찌 정말로 배를 채우려는 생각 때문이겠는가. 아마 자네가 겸손하게

말한 것이리라.

내가 보기에 양수는 불을 얻는 도구이니, 일단 불을 얻어서 꺼뜨리지 않으면 그 빛이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일단 마음의 덕을 밝혀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면 그 밝음이 극진할 것이다. 불을 켜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날로 새롭고 다시 새로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찌 화덕에 불을 피우는 정도에 그치겠는가.

술잔은 뿔로 만든 것이다. 가운데가 비어 있고 안쪽을 향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들어가는 것이 맑은 술이든 탁한 술이든 담을 수 있는 도량을 품고 있다.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선을 좋아할 것이다. 어찌 석 잔을 연거푸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걱정이 있겠는가.

칼로 말하자면 쇠로 만든 것이다. 그 분위기는 가을에 걸맞고 그 덕은 예리함에 있다. 그 예리함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한나라 진평(陳平)이 고기를 잘 썰어서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것처럼 몹시 공평할 것이요, 그 예리함을 정치에 사용하면 당나라 두여회(杜如晦)가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판결을 정확히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칼을 쥐고 그 용도를 잘 살피면 여유 있게 칼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남들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안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과 밖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가 이 세 가지 물건에 갖추어져 있다. 공자가 말한 익우(益友)\*와 맹자가 말한 상우(尙友)\*는 이를 가리킨 말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고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다. ㉠ 그가 벗에게 취한 장점이 어찌 사소한 것이라 하겠는가. 훗날 임금의 부름을 받아 대신의 자리에 오르면 관원들을 등용하고 내쫓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서, 위로는 임금의 교화를 돕고 아래로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 벗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성스럽고 밝은 임금이 위에 계셔서 군자의 도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으니, 어진 이들이 다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팔목상대(刮目相對)할 날을 기다리겠다.

- 유방선, 「서파삼우설」 -

- \* 양수: 문질러 불을 내게 하는 물건.
- \* 익우: 유익한 벗.
- \* 상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찾은 벗.

30. (가)의 화자와 (나)의 ‘이이립’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
- ② 자연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③ 타인의 평가를 통해 개인적인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
- ④ 세상을 살아가는 데 과묵함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⑤ 자신이 체험한 사물이나 공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향촌에 은거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친숙하고 변함없는 사물과 교감하면서 그것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 친화적 생활 속에서 자연물과 교감하며 이를 벗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 사대부들은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을 벗으로 인식하는 발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때의 물건들은 정치와 관련한 특별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당사자의 정계 복귀를 바라는 심정과 연결되기도 한다.

- ① (가)의 ‘다섯’은 화자가 자연 친화적 생활 속에서 벗으로 인식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물’과 ‘바회’는 화자가 친숙하게 느끼며 변함없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뒤로 사람들은 나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이립’과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고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다.’는 글쓴이가 ‘이이립’의 정계 복귀를 추진한 근거를 밝히며 그가 정계에 복귀하는 구체적 시기를 예상한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세 벗’은 글쓴이가 ‘임금의 교화를 돕’는 특별한 속성을 지닌 물건으로 여기며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이 지녔던 의문을 해소함으로써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고 있다.
- ② ㉡은 타인의 삶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족했던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질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타인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이 추측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작품 전체의 서시로, 다섯 벼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제1수>에서는 상승 이미지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영탄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제4수>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이 시련을 겪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제2수>부터 <제4수>까지는 다른 사물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제2수>부터 <제6수>까지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34. (나)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호를 지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거나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가정의 방식으로 인물이 지닌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위를 관찰한 결과를 통해 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는 형성 방식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는데, 하나의 형태소로 된 단어는 단일어이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복합어이다.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의 경우 어간만을 대상으로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구분한다. 가령 ‘읽다’는 어간 ‘읽-’이라는 실질 형태소와 종결 어미 ‘-다’라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이지만 복합어가 아니고 단일어이다. 종결 어미 ‘-다’를 제외한 용언 어간 ‘읽-’이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단일어로 분류하는 것이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하는데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 없으면 합성어가 된다. 여기서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손잡다’의 어간 ‘손잡-’은 ‘손’과 ‘잡-’으로 나뉘는데 이때 ‘손’과 ‘잡-’이 직접 구성 요소이다. ‘손잡다’는 어간의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접사가 없으므로 합성어로 분류된다. 반면에 ‘잡히다’는 어간 ‘잡히-’가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뉘어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 ‘-히-’가 분석되므로 파생어가 되는 것이다. 더 복잡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용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할 수 있다. 가령 ‘바로’, ‘잡-’, ‘-히-’로 구성된 ‘바로잡히다’의 어간 ‘바로잡히-’를 둘로 나누면 직접 구성 요소 ‘바로잡-’과 접사 ‘-히-’가 분석되는데, 이 중 접사 ‘-히-’가 있으므로 ‘바로잡히다’는 파생어인 것이다.

한편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한편 ‘높푸르다’의 경우, 두 용언이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아니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과 ㉡를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어간이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 ㉡ 직접 구성 요소로 어근만 분석되는 합성어

- ① 칫뿌리를 짓이겨서 즙을 내었다.
- ② 동생은 방학마다 시골에 내려왔다.
- ③ 엄마는 아이에게 새 옷을 갈아입혔다.
- ④ 대문을 밀어붙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 ⑤ 먼지바람이 휘날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다.

36. ㉠과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① | 끝내다  | 까먹다   |
| ② | 뛰놀다  | 바로잡다  |
| ③ | 도망가다 | 돌려받다  |
| ④ | 걸어오다 | 오르내리다 |
| ⑤ | 빛나다  | 막살다   |

37.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뜻을 가진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 ‘반의 관계’라고 하는데,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성립된다. 반의 관계에 있는 말들은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 개념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을 ㉡ ‘상보 반의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의 중간에 중립 지역이 없어서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에 반해,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을 ㉢ ‘등급 반의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은 동시에 긍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이나 인간관계에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며 서로의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단어 쌍인 ㉣ ‘방향 반의어’가 있다.

- ① ㉠: ‘총각’과 ‘처녀’는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에서만 차이가 있으므로 ‘반의 관계’이겠군.
- ② ㉡: 동시에 긍정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성립하지 않겠군.
- ③ ㉢: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한 단어의 부정은 곧 다른 단어의 긍정을 의미하므로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살았다.’를 의미하겠군.
- ④ ㉣: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정은 그 단어의 반의어와 의미가 같으므로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표현은 곧 ‘그것이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 공간에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단어 쌍의 예로는 ‘위’와 ‘아래’가 있겠군.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국어에서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능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만들 수도 있고 능동사 어간에 ‘-아/-어지다’를 붙여 만들 수도 있다. 또는 명사 어근에 ‘-되다’를 붙여 만들 수도 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복 사용하여 피동사를 만드는 것을 이중 피동이라고 부르는데, 이중 피동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규범적으로는 대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본다. 아래의 피동문 중 이중 피동이 아닌 올바른 예문을 모두 찾아보자.

- ㄱ. 그 책은 대부분의 내용이 상식적이어서 잘 읽혀진다.
- ㄴ. 손바닥으로는 저 눈부신 햇살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
- ㄷ. 그 도난품은 범인들에 의해 은밀한 장소에 숨겨졌다.
- ㄹ. 아마도 정희가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ㅁ. 그가 전해 준 소식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다.

-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ㅁ

39.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과제] 중세 국어에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애’, ‘에’, ‘예’의 쓰임을 알아보자.

- 부사격 조사 ‘애’, ‘에’, ‘예’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음절 모음에 따라 사용되었음. 즉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애’를, 음성 모음이면 ‘예’를, 모음 ‘ㅣ’나 반모음 ‘ㅍ’이면 ‘에’를 사용함.

중세 국어	㉠	㉡	㉢
현대어 풀이	땅애	눈에	사이에

- |   |         |         |           |
|---|---------|---------|-----------|
|   | ㉠       | ㉡       | ㉢         |
| ① | 짜해(짱+애) | 누네(눈+에) | 서리에(서리+애) |
| ② | 짜해(짱+애) | 누네(눈+애) | 서리에(서리+예) |
| ③ | 짜해(짱+애) | 누네(눈+에) | 서리에(서리+예) |
| ④ | 짜해(짱+애) | 누네(눈+애) | 서리에(서리+예) |
| ⑤ | 짜해(짱+애) | 누네(눈+에) | 서리에(서리+애) |

[40~42]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트로 음악, 발랄한 음악과 함께 동물들의 소리)

**진행자:** 안녕하세요.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멍냥집사들의 깨알 정보 상담소 ‘예쁜 내 새끼’ 시간입니다. 누리집으로 접속하시면 보는 라디오로 시청도 가능하고 댓글도 실시간으로 달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 원장:**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입니다.

**안○○:** 안녕하세요. 반려묘 13년 차 집사 안○○입니다.

**진행자:** 보는 라디오로 시청 중인 ‘3977’ 님이 안○○ 님 옷이 너무 예쁘다고 문자 보내 주셨네요. 애청자분들을 위해 소개를 드리면 오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무척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화사하네요.

**안○○:** ‘3977’ 님 감사해요. 평소 아끼던 옷을 이렇게 입었더니 역시 반응이 좋네요. (함께 웃음.)

**진행자:**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박◇◇ 님 사연입니다.

**안○○:** (음악과 함께) 1년 전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최근 들어 갑자기 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보는 대로 다 엮질러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온 집 안이 물바다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저에게 일부러 이러는 것 맞죠? 물을 엮지르면서 자꾸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약이 올라요.

**김 원장:** 일단 앞발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행동은 고양이에게 본능적인 습성입니다. 강아지는 냄새로 사물을 판단하니 코를 먼저 대고요. 처음에는 그릇에 대한 호기심에 앞발로 만지다가 엮질렀을 것 같은데, 행동이 반복되는 건 아마도 보호자와 놀이를 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A]

**안○○:**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제가 잘 안 놀아 주면 밥그릇을 엮어 놓곤 하거든요. 복수심으로 이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김 원장:** (웃으며) 그건 지나친 의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반려동물에게 복수심은 애초에 없다고 보셔야 해요. 놀고 싶다는 표현이니 집 안 곳곳에 먹이 장난감을 배치하세요.

**진행자:** 여러분은 지금 김 원장님, 안○○ 씨와 함께 반려동물의 사연을 함께 고민하는 생활 밀착형 반려동물 토크 ‘예쁜 내 새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연 만나 볼까요? 홍▽▽ 님의 사연입니다.

**안○○:** (음악과 함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자동차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해 하루에 한 번은 꼭 차에 태워야 해요. 안 그러면 밥도 안 먹어요. 매일 같이 드라이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행자:** 실시간 댓글에 ‘9772’ 님은 오히려 반려묘가 자동차를 타지 않으려 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원장:** 음, 두 가지 행동은 모두 습관화가 잘못 이뤄진 경우라서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려견의 경우는 반려묘에 비해 습관화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 님의 반려견은 드라이브가 습관화되어 자꾸 그 행동만 하려는 거죠. 오랜 시간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B]

**안○○:** 하루는 드라이브, 하루는 산책 이렇게 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김 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른 것에도 습관을 갖게 해야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반려견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에 비해선 덜 힘들 거예요. [C]

**진행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김△△ 님 사연입니다.

**안○○:** 얼마 전 봄을 맞아 집 안에 꽃을 사 왔어요. 그런데 들어 보니 반려동물 키울 때 식물이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던데요.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진행자:** 요즘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니 반려동물 건강 문제를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저번 주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 원장:**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탈이 나면 보호자도 같이 힘들니까요. 풀이나 꽃이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해요. 가령 수국의 경우는 꽃에 포함된 성분이 약한 청산가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반려동물이 먹으면 매우 위험하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튜립이나 백합과 같은 식물이 좋지 않아요. [D]

**진행자:** (웃으며) 오랜만에 두 분과 애청자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정말 폭 빠져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반려동물 사연과 함께할 테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김 원장, 안○○:** (함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죠. (음악과 함께 마무리)

40.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진행자의 발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청이 가능하지 않은 청취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시각적 정보를 언어적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는 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간상의 이유를 언급해 참여자들의 대화를 제한하고 있다.
  - ③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해, 청취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 ④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을 듣지 못한 청취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 ⑤ 청취자가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댓글로 올라온 사연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41. 다음은 위 방송 중 올라온 실시간 댓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예쁜 내 새끼’ 애청자 게시판입니다.

6989: 우리 집 강아지도 저에게 배변 문제로 혼나면 오히려 더 자주 아무 곳이나 배변을 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를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반려동물에게 복수심이 없었지만 이 경우는 정말 복수심이나 반항심이 아닐까요?

2789: 아마도 꽤번 후 만족스러운 표정일 거예요.

9772: 최근 우리 집 고양이는 차를 안 타려고 해요. 차로 동물 병원을 몇 번 다녔더니 그런가 봐요.

5429: 혹시 저번 주에 방송한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저도 요즘 우리 냥이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1722: 여름철 피해야 할 먹이와 권장하는 먹이 종류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내용을 깨알같이 메모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사진 첨부.JPG)

5429: 너무 감사드려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887: 김 원장님 말씀대로 반려견의 습관화 형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는 습관화 형성이 쉬웠지만 고양이는 몇 번 시도만 했지 교정은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7782: 가축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더 가축화된 거죠. 그래서 주인을 더 따르고 행동 교정도 비교적 쉬운 거죠.

- 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방송 내용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 ②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방송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 ③ 원하는 정보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응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 주기도 한다.
- ④ 방송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고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해결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기도 한다.
- ⑤ 방송에서 언급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물음에 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하기도 한다.

42. [A]~[D]에서 나타나는 ‘김 원장’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C]와 달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② [B]는 [D]와 달리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미를 전달했다.
- ③ [C]는 [B]와 달리 특정 대상의 행위가 변화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 ④ [D]는 [A]와 달리 설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을 나열하여 정보를 제공했다.
- ⑤ [A], [C], [D]는 사실적 정보 제공의 형태로 행동을 촉구했지만, [B]는 직접적인 명령문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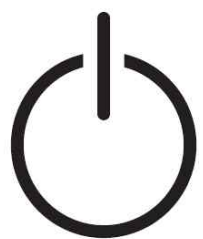
[43~45]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블로그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전원 버튼,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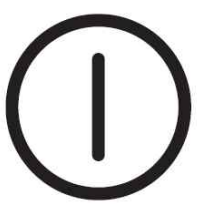
집에 있는 가전 기기들의 전원 버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양이 참 다양하죠. 그중에 1이랑 0이 합쳐진 형태의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것도 있어요. ㉠ 그런데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쭈우우욱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선풍기나 전열 기구의 전원 버튼 모양이에요. 숫자 1과 0이 보이시죠? 1은 켜진 상태, 0은 꺼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0과 1이 합쳐진 동그라미 모양의 버튼도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교대로 꺼짐과 켜짐이 반복되는 것이죠.



대기 전력 ○



대기 전력 ×

그런데 그림으로 보듯이 이 버튼의 모양이 서로 달라요. 1의 위치가 원 밖으로 나온 것과 원 안에 있는 것이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왼쪽의 것은 대기 전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고, 오른쪽의 것은 대기 전력이 없는 제품이라는 ㉡ 뜻이에요.

㉢ 아, 대기 전력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에어컨 등의 경우는 코드만 꽂혀 있다면 전원 버튼이 꺼져 있어도 대기 전력이 소비되죠.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었다니 ㅏㅎ황황. 화가 나네요. ㉤㉤

다행히 대기 전력 저감을 위해서 대기 시간에 슬립 모드 채택과 대기 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 전력 저감 우수 제품에는 에너지 절약 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에너지절약**  
대기 전력 저감 기준 만족 제품    대기 전력 저감 기준 미달 제품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오늘 포스팅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 앞으로도 생활에 착 밀착된 정보 제공은 계에에속 이어집니다. ㉡ 다음에 뵈게요. ㅂㅇㅂㅇ.

43. 위 블로그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명하는 대상과 관련된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여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언어적 메시지 이외에 시각 자료들을 함께 사용하여 독자가 해당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③ 설명하고자 하는 시각 자료마다 각각의 출처를 따로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대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④ 비교하여 이해해야 할 이미지를 서로 인접하게 배치하여 대상의 특징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⑤ 설명하는 내용에서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글씨체와 굵기를 달리하여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디지털 매체에서는 문자를 사용함에도 마치 대화를 하듯 표현하는 음성 언어적인 표현이 나타나거나 표현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호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전달하려는 의미를 생생하게 혹은 재미있게 나타내기 위해 일상어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자아알’과 같은 음절 늘이기 등을 이용해 생생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표현상의 재미를 위해 ‘오ㅏㅏ’와 같이 음절을 파괴해 원래 말을 짐작하기 어려운 의도적인 오타를 쓰거나 ‘인정’을 ‘ㅇㅈ’으로 쓰는 것과 같이 음절의 일부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① ㉠: 작성자의 기분을 드러내는 의도적인 오타와 음절 늘이기가 나타나 있군.
- ② ㉡: 감탄사나 해요체를 사용한 음성 언어적 표현과 특정 단어의 일부만을 사용한 개성적 표현이 나타나 있군.
- ③ ㉢: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도적인 오타와 감정 제시 기호를 사용하고 있군.
- ④ ㉣: 블로그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될 것임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음절 늘이기와 의도적인 오타를 사용하고 있군.
- ⑤ ㉤: 글을 재미있게 마무리하고자 느낌을 드러내는 기호와 음절의 일부만을 사용한 표현을 제시하고 있군.

45. <보기>는 ㉠의 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여 표기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에요’와 ‘-어요’가 ‘이다’의 어간 ‘이-’나 ‘아니다’의 어간 ‘아니-’ 뒤에 나올 때, 그 발음과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 앞에 모음이 있으면 대개 ‘ㅣ’ 모음이 반모음 ‘j’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그럴 때에는 그 발음에 따라 ‘이에요’와 ‘이어요’를 각각 ‘예요’와 ‘여요’로 줄여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앞에 자음이 있으면 ‘이에요’와 ‘이어요’가 각각 ‘예요’와 ‘여요’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줄여 적을 수 없다. 한편 ‘아니-’가 ‘-에요’, ‘-어요’와 결합할 때에는 줄이지 않은 표기와 줄인 표기를 모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 ① 저는 학생이 아니예요.
- ② 이건 영수의 불펜이어요.
- ③ 서울은 한국의 수도여요.
- ④ 이 동물은 코끼리이예요.
- ⑤ 그분은 저의 형이 아녀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23학년도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2회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④
11.	④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①	19.	⑤	20.	④
21.	⑤	22.	③	23.	⑤	24.	③	25.	③
26.	④	27.	④	28.	②	29.	④	30.	⑤
31.	④	32.	⑤	33.	③	34.	⑤	35.	②
36.	⑤	37.	④	38.	③	39.	③	40.	②
41.	④	42.	④	43.	③	44.	③	45.	①

해설은 수능완성 정답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